

## “텐! 텐! 텐!” 5·18민주광장 들썩인 태극공사들

9월 세계대회 앞두고 '프레' 대회 민주화 성지서 '광주 정신' 관통 광주 금 5·은 6·동 3개...종합 3위

“텐! 텐! 텐!” 90m 너머 정중앙을 꿰뚫는 화살에 광장이 들썩였다.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예비 무대인 '제43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 결승전이 29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펼쳐졌다. 사활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피야박 아래에서도 선수들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은 채 극한의 승부를 이어갔다.

이날 결승은 지난 24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고등·대학·일반부 선수들의 마지막 무대였다.

특히 차량 경적, 시민 소음 등 도심 한복판의 소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기를 이어간 모습은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양궁 사대가 들어선 민주광장은, 1980년 5월 계엄군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쳤던 상징의 공간이다. 이날 만큼은 같은 자리에서 평화를 향한 활시위가 팽팽히 당겨졌고, 화살 한 발 한 발이 표적지를 꿰뚫을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터졌다.



제43회 대통령기 양궁대회 결승 경기가 29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열려 리커브 남여 고등부, 남여 대학부, 남여 일반부 등 종목별 개인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대회는 2025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프레 대회로 열렸다. 김양배 기자

여자 대학부 리커브 개인전 결승에 나선 오예진(21·광주여대)과 탁해운(22·순천대)의 맞대결은 경기장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오예진은 1·2세트를 모두 29-27로 따내며 4-0으로 앞섰으나, 이후 두 세트를 내주며 4-4 동점을 허용했다.

마지막 세트에서 침착하게 29점을 기

록한 오예진이 흔들린 탁해운(25점)을 따돌리며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결승 현장을 찾은 시민들도 경기의 박진감에 빠져들었다. 이른 아침부터 경기장을 찾은 윤종찬(76)씨는 “기보배, 안산 같은 올림픽 스타들을 길러낸 광주는 양궁의 자존심”이라며 “이렇게 상징적인 장소에서 세계대회를 앞두고 예비전이 열리

니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계선수권을 앞둔 마지막 실전 무대인 이번 대회는 광주가 다시 한 번 '양궁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였다.

오는 9월에 펼쳐지는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더 박진감 넘치는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예비 무대에서 부족했

던 관중석이 마련되는 것을 포함해 선수들이 대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근 도로 통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양궁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 등 총 14개의 메달을 획득, 시도종합순위 3위를 차지했다.

오예진이 금 2개(여대부 개인전·30m)와 은 4개(단체전·70m·60m·50m)를 따내며 광주의 선전을 이끌었다.

이승윤(광주 남구청)은 금 1개(남일부 90m), 최미선이 금 1(여일부 30m)·동 1개(개인전), 전준희(광주체고)가 금 1개(남고부 30m), 김수린(광주시청)이 은 1(여일부 60m)·동 1개(여일부 단체전), 신정우(광주체고)가 은 1개(컴파운드 고등부 개인전), 이동민(광주 남구청)이 동 1개(남일부 개인전) 등을 각각 수확했다.

한편 3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남녀 컴파운드 태극전사(최용희·김중호·최은규·소채원·심수인·한승연)들과 해외우수선수단, 남녀 리커브 태극전사(김우진·이우석·김제덕·임시현·안산·강채영)들과 이번 대회 남녀일반부 우승팀인 울산 남구청, 인천시청과의 특별 이벤트 매치가 열린다. 최동환·민현기 기자

## 기재 구윤철·법무 정성호·행안 윤호중 교육 이진숙·산업 김정관·복지 정은경

이재명 대통령, 6개 부처 장관 등 인선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인선했다.

이로써 부처 19곳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17곳 인선(16곳 후보 지명·1곳 유임)이 이뤄지는 등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짜는 조각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 법무부, 행정

안전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대통령실 수석 2명을 임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이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지명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역시 친명계 중진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낙점받았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산업통

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다.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이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오유경 현 처장을 유임시키기로 결정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급 이상의 인사가 유임된 것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국정원 1·2차장과 기초실장에 대한 인

선도 이뤄졌다.

1차장에는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는 김호흥 전 대북전략 단장을 임명했고, 기초실장으로는 김희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봉육 민정수석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도 이날 임명했다.

지난 13일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퇴하면서 후임을 맡게 된 봉 민정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 겸 대검찰청 차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관련기사 2면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에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타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